창사 64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제8254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음력 7월 15일)

'예산 지원' 기초의회 연구모임 투명성 강화 절실

동·서구의회 관련 조례에도 성과 공개 조항 전무
"지원비 사용 내역·보고서 공유 필요" 여론 비등

광주 기초의회 의원 연구모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원 연구모임은 주민 세금으로 이뤄진 의회 운영 예산을 통해 활동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5개 구의회 관련 조례에 지출내역·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할 근거 조항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가법령센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5개 구의회는 의원 연구모임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의원 연구모임'은 구의회 별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또는 '의원 연구회'로 명시돼 있으며 의원들이 의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를 의미한다.

의원 연구모임은 의원들이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성 인원과 활동비, 결과 보고서 제출·관리 등 세부 사항은 구의회 별로 상이하다.

동구의회는 '광주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단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정책개발비를 지원한다.

연구단체는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와 지출 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 서구의회 연구단체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자료수집비와 여비, 식비, 회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단체는 당해 연도 11월30일까지,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31일까지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한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와 달리 동·서구의회는 자체 조례에 결과 보고서를 의원연구단체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택사항이다. 사용내역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할 근거가 없어 의원들의 연구모임 활동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이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과 연구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남구의회는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연구단체에 활동비를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연간 200만원 내에서 자료수집비와 여비, 회의비,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은 연구단체가 연구 종료 1개월 이내로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한 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남구의회는 홈페이지에 결과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관련 조항에 따라 남구의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저출산극복 살기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 2건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2면에 계속 /강승희 기자

다시 문 연 광주 임시선별검사소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구 상무지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주차장에 다시 설치된 광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순서대로 검사를 받고 있다. 시청 임시선별검사소가 문을 닫은지 70여 일 만인 이날부터 재개된 선별검사소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 ▶관련기사 6면 /김애리 기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EIP 공개

부드럽고 단단한 물 속성 내포

제14회 광주비엔날레 EIP(Event Identity Program)가 공개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내년에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EIP를 11일 발표했다.

EIP란 행사의 컨셉과 목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도덕경 78장 '유약어수'(柔弱於水)에서 차용했다. '세상에서는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이처럼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물을 은유이자 원동력, 방법으로 삼고 이를 통해 지구를 저항, 공존, 연대와 돌봄의 장소로 상상한다.

이러한 주제를 나타내는 EIP는 물이 지닌 부드럽고도 강하며 포용력 있는 속성을 시각적으로 탐구하는 데 주력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시그니처에서 주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의 타이포그래피는 물의 충만함과 말라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글자 사이를 관통하는 곡선의 형태는 강함과 부드러움, 경계의 모호함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EIP는 젊은 디자이너 세대를 대표하는 강문식 디자이너가 개발했다. 한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 수학하고 이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 디자이너는 미술과 패션, 음악, 브랜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내년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 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펼쳐진다. /최명진 기자

광주·전남 경제고통지수 '악화일로'

양 지역 모두 9.5…각각 13년·23년만에 최고치
김회재 "尹정부 민생 고통 경감책 마련해야"

전남의 경제고통지수가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의 경제고통지수도 13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을)이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똑같이 9.5를 기록했다.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 실업률은 2.9%였고, 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3%, 실업률은 2.2%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남의 경제고통지수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 광주의 경제고통지수도 2008년 8월(9.8)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경제고통지수는 9.2(소비자물가 상승률 6.3%, 실업률 2.9%)였다. 이 역시 1999년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고물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제고통지수는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올해 4월 7.8이었던 전국 경제고통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5월 8.4, 이후 6월 9.0으로 높아지더니 지난달 결국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을 제외하고 전국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01년 2월과 3월이었다. 당시 경제고통지수는 두 달 모두 9.1을 기록했었다.

전국 경제고통지수가 2개월 연속 9.0을 넘어선 것도 2001년 3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 비교 시 지난달 전국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p나 뛰어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들의 민생고통은 초비상인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신자유주의 정책을 외치며 부자만 챙기는 '서민 외면, 부자편향 정부'가 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재원을 빼내 부자들의 잇속만 불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미 진행 중이다"며 "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민생고통 경감 대책을 마련해 고물가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주말·연휴에도 '찜통더위'

이번 주말·연휴에도 광주·전남은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일부지역에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상 강수량은 30-80㎜다. ▶관련기사 3면

기상청은 비구름 이동에 따라 강수량과 강수 구역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비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최고 기온은 순천 34도, 나주·담양·화순·광양·구례·곡성·장흥·보성 33도다. 나머지 지역도 30도를 웃돌겠다.

13-14일 광주·전남 전역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길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전남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광복절 대체휴무 15일자 신문 쉽니다.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지구를 아끼는
우리는 NZ 세대
NET ZERO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Net Zero)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NZ세대입니다!

LED 조명으로
저녁도 밝게,
지구도 밝게 바꿔요.

문닫고 냉방으로
적정온도 26℃를 지켜요.

에너지 캐쉬백 가입으로
전기는 줄이고
용돈은 늘려요!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전력은 쉬세요!

고효율 제품으로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써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